

#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 논 문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UCCN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남기범

도시 문화생태계에 대한 유럽의 관점  
실비아 아만

우리의 실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공유성복원탁회의’라는 실험  
권경우

문화생태계 조성: 2019 유럽 문화 수도 마테라의 경험  
로젤라 타란티노

문화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국립 박물관의 역할  
장상훈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마르타 요베트

## 문화생태계 조성: 2019 유럽 문화 수도 마테라의 경험

로젤라 타란티노\*

### 초 록

이 논문은 2019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된 마테라가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실천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생산 모델을 추진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유럽 문화 수도 건설을 위해 문화생태계를 조성해 온 장기적인 과정, 이 지역의 낮은 문화 참여율, 그리고 마테라 2019 프로그램의 도전과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롭다.

도시에 큰 기념물이나 훌륭한 문화센터가 없어도 유럽 문화 수도가 될 수 있을까? 작은 도시가 문화를 수입하는 대신 문화를 생산할 수 있을까?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화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민들까지 포함해 문화 생산에 최대한 많은 시민을 동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유산'의 개념을 확대하여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열린 문화와 집단 지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웰빙과 사회적 권한 강화 측면에서 공동 창작과 참여적 실천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키워드:** 생태계, 유럽 문화 수도, 신뢰 구축 과정, 권한 강화, 집단 지성, 열린 문화, 공동 창작, 참여, 파로협약

\* 로젤라 타란티노는 문화, 도시 재생 및 사회 혁신을 중심으로 공공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학자이다. 그녀는 2010년에 시작된 마테라 2019 유럽 문화 수도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유치 신청 전략과 도시의 재구상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평가 연구를 조정하고 문화유산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책임자이기도 했다. 현재 그녀는 유럽 문화 수도 위원회 위원이다.

이메일: quentinatarantin@gmail.com

## 1. 마테라, ‘2019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

2014년 10월 17일에 마테라는 이탈리아 21개 도시가 참여한 4년에 걸친 치열한 경쟁 끝에 ‘2019년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되었다. 마테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도시가 참여한 경쟁에서 승리했고, 가장 작은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기에 이 타이틀은 더욱 값진 것이었다.



그림 1. 2019년 마테라는 플로렌스와 제네바에 이어 이탈리아의 ‘유럽 문화 수도’가 되었다.  
(© Fondazione Matera-Basilicata 2019)

역사적으로 유럽은 뛰어난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지닌 예술 발전의 중심지였으며, 유럽 도시들은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85년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의 주도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유럽 문화 수도 활동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 이후 60개 이상의 EU 도시가 선정되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유럽의 풍부함과 다양성, 그리고 공통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문

화가 경제, 사회, 도시 수준에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도시들이 대규모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재고하고,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문화적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두 개의 다른 EU 회원국\*\* 중에서 두 개의 도시를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문화 수도는 지정 연도 6년 전에 호스트 회원국이 실시하는 두 차례에 걸친 EU 표준 경쟁에 기초하여 지정된다.

예를 들어 마테라의 경우, 2012년에 이탈리아 문화부에 의해 경쟁이 시작되었다. 예비 선정된 6개의 도시들이 2013년에 두 번째 라운드에 진출하였고, 2014년 10월 마테라는 ‘2019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다. 후보 도시들은 문화 또는 문화 기반 도시 개발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마테라는 이후 4년에 걸쳐 2019년에 제공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실제로 마테라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인구 60,000명의 도시로, 131개 마을에 550,000명이 흩어져 살고 있는 바실리카타주(Basilicata)에 위치하고 있다. 마테라는 구석기 시대부터 거의 10,000년 동안 인간이 존재해온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아마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일 것이다. 작은 고대 도시이지만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반전의 스토리를 간직한 매력적인 도시다. 195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바위를 파서 이룬 거대한 동네인 ‘사씨’(Sassi)에서 거의 20,000명의 사람들이 매우 열악한 생활 조건

1. DECISION No 445/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establishing a Union action for the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for the years 2020 to 2033 and repealing Decision No 1622/2006/EC.

2. 일반적으로 3년마다 유럽연합 후보 국가, 잠재적 후보 국가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유럽경제지역 협정 당사국, 이른바 EFTA/EEA 국가) 중에서 세 번째 유럽 문화 수도가 선정된다.

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수치”로 선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강제 이주가 조직되어 이 인구는 새로운 사회 주택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구시가지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버려진 ‘마을’의 문화적, 생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난 것은 무엇보다도 지식인층 덕분이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1986년, 특별한 재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어 3,000명의 사람들이 사씨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버려진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대피 후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 돌아온 거의 유일한 사례다.

1993년 마테라와 사씨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사씨의 토착 건축물은 지형적 환경과 생태계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는 동시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속성을 보여주는 동굴 거주지의 예로 꼽혔다. 이 유산이 세계유산이 된 것은 유명한 건축가나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수 세기에 걸쳐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찾아낸 수많은 ‘카포마스트로’(capomastro, 현장 감독)의 집단적이고 다층적인 작업의 결과다.

수많은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마테라와 그 풍경을 이상적인 세트장으로 선택했는데, 가장 유명한 감독으로는 1960년대에 『마태복음』을 촬영한 파졸리니였고, 2003년 『그리스도의 수난』을 촬영한 멜 깁슨을 비롯한 수많은 이탈리아와 미국 감독들이 그 뒤를 따랐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영화들은 유네스코 유적지라는 브랜드와 함께 가난과 수치심의 상징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던 마테라를 유명한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2009년 한 시민단체가 유럽 문화 수도 지정을 위한 후보지 선정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강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마테라의 이미지와 운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과정은 소수의 지식인과 외부 이벤트에 의해 시작되고 관리되었지만, 이제 유럽 문화 수도를 위한 후보 과정은 대규모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 도시를 다시 상상하고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2. “우리가 베니스나 팔레르모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회의론은 무엇보다도 다음 두 가지 질문과 관련이 있다.

- 브루넬레스키, 비엔날레, 라 스칼라가 없는 도시가 유럽 문화 수도가 될 수 있을까?
- 작은 도시가 문화를 생산하고 유럽 문화 수도가 될 수 있을까?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마테라가 이 두 가지 질문과 큰 도전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도시와 지역의 모든 유기적인 부분들(기관, 문화기관, NGO, 사회단체, 기업, 특히 시민)이 함께 모여 유럽에 새로운 문화를 제안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 브루넬레스키, 비엔날레, 라 스칼라가 없는 도시가 유럽 문화 수도가 될 수 있을까?

마테라는 매력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며, 회복탄력성이라는 상징적인 스토리로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유명한 문화기관이나 국제적으로 평가받은 축제와 같이 자랑할 만한 것은 없었다. 유럽 문화 수도 유치를 위한 신청 절차를 시작할 때 이 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뿌리 깊은 문화 전통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생산자들에게 주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마테라 시는 이들에게 국제적인 예술가 및 문화기관과 유대 관계를 구축하여 더 큰 시야로 생각을 하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투자는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 문화 생산자 대부분은 지역관리청이 3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인 ‘비시오니 우르바

네'(Visioni Urbane, 도시의 비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 프로젝트(2007-2010년)의 목적은 지역 문화단체와의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 및 창의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이 대화는 정책 입안자와 풀뿌리 문화 생산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다.

- 개별 인터뷰
- 바이럴 방식\* (“문화단체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인터뷰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 및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블로거, 제작자, 시각 디자이너도 포함)에 기반한 섹터 매핑
- 인터뷰 및 매핑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섹터에 대한 공동 분석
- 블로그 및 국제적으로 평판이 높은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개발된 다자간 대화
- 지역 문화 및 창의 전략을 개발하는 문서의 공동 초안 작성

이러한 방식은 모든 참가자와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일대일’ 방식이 아님), 블로그 사용은 투명한 협의 과정을 보장하고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특정 주제(예: 기술과 예술, 스토리텔링과 새로운 정체성, 문화 기획, 창작 센터, 기금 모금)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은 지역주의적 관점을 넘어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 충격’으로 고안되었다.

이 과정/프로젝트의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성과를 달성했다.

- 공동체 구축: 이 과정을 통해 다른 동료들의 활동을 거의 알지 못했던 수많은 1인 생산자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이 끝날 무렵, 이들 대부분은

---

3. 바이럴(viral)이란 정보나 메시지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역자 주).

공연이나 전시를 공동 제작하고, 제품을 유통하며, 축제를 조직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 더 크게 생각하기: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파트너와 국제적인 파트너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 버려지고 망가진 공간 개조 및 독립 문화센터 네트워크 출범
- 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진 생산자 공모, 국제 프로젝트 공모 등 새로운 문화 및 창의 정책 실행.

이러한 과정이 끝날 무렵인 2010년 말, ‘비시오니 우르바네’ 프로젝트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하여 마테라 2019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 전체의 문화 공동체는 유럽 문화 수도를 위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 결과 바실리카타의 문화 및 창의 공동체는 마테라 2019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 프로그램에는 유치 제안서(bid book) 설계 및 시민 참여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등의 유치 신청 단계와 유럽 문화 수도의 해 기간 동안 진행할 행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마테라 2019 문화 프로그램의 약 40%는 마테라의 문화 운영자들이 전 세계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실행했다. ‘비시오니 우르바네’ 프로젝트와 함께 시작된 역량 강화 과정은 유치 신청 단계는 물론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에서도 계속되었다. 문화 생산자들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일련의 워크숍과 공동 창작 랩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문화 생산자(프로젝트 리더)들은 ‘Go and See’라는 바우처를 통해 유럽을 여행하며 파트너와 예술가를 만나고,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유사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럽 및 전 세계 150명의 아티스트, 밴드,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모든 문화 생산자들이 참여형 방식이나 공동 창작 방식을 채택하여 국제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창작, 제작 및 제공 단계에서 많은 시민을 참여시켰다.

문화 수도의 해가 끝난 후 ‘마테라 바실리카타 2019 재단’(Matera Basilicata 2019



Foundation)은 마테라 2019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화 생산자들 간의 기본적이고 횡단적인 역량의 향상을 조사하기 위해 평가 연구를\* 의뢰했다. 가장 높게 향상된 역량은 한편으로는 네트워킹, 관리 능력, 안전한 장소 설치 능력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간 역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었다. 2020년 초,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까지 각 프로젝트 리더들은 주로 지역 과 국경을 넘어 세 차례 이상 자신들의 상품을 유통했다.

#### 4. 작은 도시가 문화를 생산하고 유럽 문화 수도가 될 수 있을까?

유럽 문화 수도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도시를 재구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가 가진 자원과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마테라는 중소 도시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물론 마테라도 대도시와 큰 규모의 문화기관에서 주로 생산되는 문화를 수입하는 모든 중소 도시와 비슷한 운명을 공유했다. 마테라 역시 다른 지역이나 도시에서 비롯된 중앙집중식 문화의 소비자였다.

마테라와 같은 작은 도시가 문화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마테라는 참여적이고 수평적인 실천에 기반한 새로운 생산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문화 시장의 변방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가 당면해 있는 문화 생산의 과제를 해결했다. 창작자와 예술가 그리고 수동적인 관객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모델이 아니라, 정반대로 창작 또는 제작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모델(공동 창작 또는 참여 문화)을 채택했다.

이런 점에서 마테라는 오픈소스 운동에서 비롯된 ‘열린 문화’ 모델을 채택했는데, 이는 공유, 협업, 개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문화 생산 모델을 장려하면서 대중이 참여하고 문화 접근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화 생산 패턴의 변화는 디지털 기술과 오픈 라이선스 운동에 힘

---

4. PtsClas S.p.A., “In Matera we produce culture. Effects and impacts on the skills of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2020).

입어 문화 창작 과정이 민주화되면서 더욱 용이해졌다.



그림 2. 많은 해외예술가와 지역문화사업자가 지역문화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Fondazione Matera-Basilicata 2019)

마테라 2019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문화 선언에 따르면, 마테라가 수세기에 걸쳐 내재된 지식을 향상시킨 수많은 '카포마스트로'(현장 감독)의 공동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문화도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하여 많은 시민을 창작, 제작 및 제공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집단 지성 프로세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 생산 방식은 문화 격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의미했으며, 특히 문화에서 배제되거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역할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문화 생산이라는 위대한 연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앞서 강조했다듯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지정과 관광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테라 시민들은 아직도 도시의 상징적인 역사와 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신들의 잠재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자신감 부족은 이탈리아 남부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결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론은 투명한 절차에 대한 의구심, 약한 지역적 응집력, “치욕의 수도”라는 마테라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력 등과 같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더욱 커졌다. 또한 인구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문화 소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했다.

따라서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설계하는 전략은 2019 마테라 선언문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선언문은 문화의 사회적, 시민적 차원뿐만 아니라, 마치 시민이 도시의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도시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5. 시민은 도시의 소프트웨어다

도시는 거리, 건물, 도시 인프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도시는 이러한 물리적 유산을 유지, 적응, 개발, 개선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지식과 기술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식은 물리적 인프라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지식이 있다면 대재앙으로 파괴된 도시는 돌과 강철이 더이상 같지 않더라도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재건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이 시들해지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은 폐허가 되고 운하가 메워지고 도로가 정글과 숲으로 뒤덮이고 인구가 흩어지게 된다. 도시는 — 어떤 도시든 —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사씨는 마테라가 아니라 우리다.

마테라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왔으며, 이는 유럽과 지구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라비나(Gravina)를 넘어 유럽, 지중해, 지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우고, 최선을 다해 나누고, 의심이나 편견 없이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마테라라면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이 길을 완수하기 위해 거듭나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 마테라가 2019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된 것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는 마테라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도전이다. 우리는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흥미로운(때로는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축적된 많은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Margherita Sani et. al. 2015, 63-64).

이 선언문은 마테라의 모든 시민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제안함으로써 유치 선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통해 시작되었다. 첫째, 이들 아이디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둘째, 시민들 스스로가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디어 공모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협력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촉구’였다.

이것은 “정부나 시장이 해야 할 일이다” 또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아 실행에 옮길 수 없다” 등과 같은 고정관념과 통념을 뒤집는 방식이었다. 지리적으로 흩어진 사람들(디아스포라 포함) 간의 그리고 시민과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의 결과로 이 플랫폼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탄생했다.

이 지역의 작은 마을들이나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까지 포함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문이 정말로 열려 있다”고 느끼고 유치 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시에 다양한 연령, 역량, 경험, 출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많은 이니셔티브가 진행되었다.

## 6. 파로협약과 유산 공동체

앞의 선언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마테라 2019 프로그램은 유산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더불어 공동체와 사회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파로협약(Faro Convention)\* 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파로협약에 따라 마테라 2019의 목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산을 알고 감상하며, 유산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도록 안내함으로써 “유산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미술 보존가들과 18세기 그림들을 마테라 사회 주택에 모은 마테라 박물관을 예로 들 수 있다. 박물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이 사회 주택의 주민들은 그림 복원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웃에게 집을 개방하여 그림과 복원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다른 주도적인 계획들은 수년에 걸쳐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후보 도시 선정 초기에 마테라를 단순히 쾌적한 광장에 있는 아름다운 궁전으로만 여겨졌지만, 수년에 걸쳐 이 곳은 시민들의 집이 되었다. 마테라에서 시민들은 젊은 밴드가 연주하는 클래식이나 록 콘서트를 듣고, 조명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하고, 현대 무용에 대한 공동 창작 랩에 참여하거나 ‘수도의 해’에 진행된 훌륭한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 과정은 지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를 통해 마테라와 지역 주민들은 문화는 장식이나 소수의 소유물이 아니라 매일 함께 만들고 만들어가야 하는 긴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단체(예: 교구, 학교, 성소수자 NGO, 이주민 단체, 장애인 단

---

5. "사회를 위한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일명 파로협약)은 다자간 유럽평의회 조약이다. 이 협약은 “유물과 장소가 그 자체로 문화유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문화유산은 사람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와 용도,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가치 때문에 중요하다.” 이 협약은 2005년 10월 13일에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7일에 포르투갈 파로에서 회원국들에게 서명을 공개했다. 이 협약은 2011년 6월 1일에 발효되었고, 현재까지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고 7개국이 서명했다.

체, 엄마 단체, 스카우트 등)와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마찬가지로, 시민 참여 전략은 병원, 교도소, 콜센터, 학교, 공장, 공예 공방, 외곽 상업 중심지, 외딴 마을, 접근하기 어려운 곳, 인구 감소 지역 등 ‘문화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다양한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문화 생산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 전략의 목표는 다양한 이야기, 능력, 기술, 출신,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

## 7. 공동 창작, 참여, 웰빙

공동 창작과 광범위한 참여적인 문화 생산은 마테라 2019의 트레이드마크였다. 문화 프로그램의 80%는 시민을 문화 생산의 중심에 두면서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장벽을 점진적으로 허물었다. 마테라 2019 행사에는 57,000명 이상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열린 공개 모집과 공개 채용 미팅에 응했다.

제작 주기의 여러 단계에서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참여하면서 제작물과 형식이 다양해졌다.

- **공동 창작:** 시민들은 창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다. 일부는 지역 오페라의 대본을 공동 집필하거나 “감성 도시”<sup>6</sup>를 매핑하고 이를 나타내는 전시<sup>7</sup>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 **제작 단계에 참여:** 밀로 라우(Milo Rau)는 현대판 『마태복음』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연극에 이주민과 시민들을 참여시켰고, 다양한 연령과 실력의 무용수들은 공연의 순수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 “잘 추는 춤”에 대한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6. “Silent city—a community opera—l’Albero,”

<https://www.matera-basilicata2019.it/en/programme-2019/themes/ancient-future/1336-silent-city.html>.

7. “Atlas of the Emotions of the Cities—Teatro dei Sassi,”

<https://www.atlantedelleemozioni.it/?lang=en>.

- **제공 단계에 참여:** 5천 명의 시민들이 불빛을 만들어 문화 수도 개막식을 빛냈다.

이러한 참여는 일부 시민들에게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에 대한 갈망”을 남겼다. 2019년 말, 이러한 참여 활동에 참여한 50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일부 예술가들을 다시 마테라로 불러들여 ‘마테라 2020 시민 선언문’을 공동 작성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레지던시와 창의적인 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를 개방하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실천과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 행사를 독특한 축제로 만들 것이며, 의식 있는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테라 바실리카타 2019 재단’은 2020년에 피에르루이지 사코(Pierluigi Sacco) 팀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이 기술, 관계 및 웰빙의 구축 또는 향상 측면에서 참가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2019 마테라 문화 수도가 설문조사와 인터뷰 응답자 대다수에게 **자신감 향상(약 46.5%), 실력 향상(약 60%), 협업 능력 향상(80% 이상), 협력 및 타인 이해력** 측면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결과에 따르면, 예술적 개입을 통해 공유 자원의 공동 구축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개인적, 집단적 능력에 투자하여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유럽 문화 수도에 대한 경험의 가치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9 마테라 문화 수도는 참여적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 문화 수도의 맥락에서 완전한 모범 사례를 대표하며, 이는 남부 이탈리아 지역의 전형적인 문화 참여율, 즉 유럽 연합 전체에서 가장 낮은 문화 참여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의미가 있다. (...)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2019 마테라 문화 수도의 경험은 문화가 복지와 인지적 성장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집단적 웰빙 수준을 유지, 생성,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3. 지역참가자들은 세계예술가들과 함께 마테라 2019의 주인공이 되었다.

(© Fondazione Matera-Basilicata 2019)



---

## REFERENCES

Alberto Cottica. 2010. Wikicrazia. Navarra Editore.

Arteco S.a.S. (Team led by Professor Pierluigi Sacco, composed of Professor Giorgio Tavano Blessi, Professor Sabrina Pedrini and Ms Maria Tartari). “Co-creating Matera.”

[https://www.matera-basilicata2019.it/images/valutazioni/ES\\_Co-creating\\_Matera\\_eng.pdf](https://www.matera-basilicata2019.it/images/valutazioni/ES_Co-creating_Matera_eng.pdf).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Faro Convention). <https://rm.coe.int/1680083746>.

DECISION No 445/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establishing a Union action for the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for the years 2020 to 2033 and repealing Decision No 1622/2006/EC. [https://eur-lex.europa.eu/eli/dec/2014/445\(1\)/2021-01-01](https://eur-lex.europa.eu/eli/dec/2014/445(1)/2021-01-01).

Garcia, Beatriz, et al. 2013.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Success Strategies and Long-Term Effects.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etudes/join/2013/513985/IPOL-CULT\\_ET\(2013\)513985\\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etudes/join/2013/513985/IPOL-CULT_ET(2013)513985_EN.pdf).

Matera Basilicata 2019 Foundation. Matera candidate city european capital culture 2019. Matera 2019 final Bid Book.

[https://www.matera-basilicata2019.it/images/2019/allegati/dossier\\_mt2019-can didacy\\_eng.pdf](https://www.matera-basilicata2019.it/images/2019/allegati/dossier_mt2019-can didacy_eng.pdf).

. “The 2019 Experience and the Legacy of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Matera 2019.

file:///C:/Users/user/Downloads/Presentazione\_indagine\_cittadini\_matera2019%20ENG\_def.pdf

. 2021. Matera is a producer of culture—Monitoring report of Matera European Capital of Culture 2019. 2nd edition.

<https://www.matera-basilicata2019.it/en/report-2019/in-matera-we-produce-culture.html>.

Matera 2019 Open Data Portal.

<http://opendata.matera-basilicata2019.it/en/>.

“Matera 2020 Citizens’ Manifesto.”

file:///C:/Users/user/Downloads/Manifesto\_EN%20(2).pdf.

Palmer/Rae Associates. 2004. European Cities and Capitals of Culture.

Study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Brussel.

PtsClas S.p.A. (team led by Professor Lucio Argano, composed of Angela Tibaldi, Costanza Rapone and Desirée Campagna). “In Matera we produce culture. Effects and impacts on the skills of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https://www.matera-basilicata2019.it/images/valutazioni/3b\\_ES\\_Matera2019\\_The\\_effects\\_on\\_the\\_local\\_skills\\_system\\_eng.pdf](https://www.matera-basilicata2019.it/images/valutazioni/3b_ES_Matera2019_The_effects_on_the_local_skills_system_eng.pdf).

Sani, Margherita, et. al. 2015. Mapping of practices in the EU Member States on Participatory governance of cultural heritage to support the OMC working group under the same name (Work Plan for Culture 2015-2018). EENC Short Analytical Report June 2015. <https://www.interarts.net/descargas/interarts2541.pdf>.